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11명 '수사 중'

허위사실 유포 4명 최다... 사전 선거운동도 2명 제주시갑 문대림 총 3건 피소... 경찰 "확인 불가" 선관위는 도의회 보궐선거 양영수 당선인 조사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상자에 문대림 국회의원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11명으로 이중 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선거·사전 운동 2명, 투표지 촬영·훼손 2명, 금품수수 1명, 현수막·벽보 훼손 1명, 선거 폭력 1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중 당선인이 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 전 제주국가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당선인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곽광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 측으로부터 총 세 차례 고발됐다.

3건 중 1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고 후보 측은 지난 달 25일 열린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주최 TV토론회에서 문 당선인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

고 후보 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문 당선인이 경선을 치렀던 같은

당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음에도 형님 동생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후보 측은 문 당선인이 경선 과정에서 송 의원과의 과거 통화 내용을 녹취해 불법 유통한 정황이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밖에 고 후보는 문 당선인이 JDC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인사이자 친분관계가 두터운 비상임이사 A씨와 공모해 일감을 받주하고 이 사업을 A씨 남편 명의로 수주한 의혹이 있다며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진보당 소속 양

영수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양 당선인이 SNS 단체 대화방에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이라는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을 했으며 이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양 당선인은 이같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주장에 대해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한 적 없다"며 "선관위에 소명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선거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상민기자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이 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인 울무를 발견해 수거하고 있다.

들과 산에 야생동물 노리는 '울무' 천지 도, 최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 10점 수거

최근 3년간 82점 수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도 및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인 울무 10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

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통해 2명을 적발, 벌금 등 조치됐으며 울무는 2022년 53점, 2023년 19점, 2024년 10점 등 총 82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 또는 밀거래나 울무·덧·창에 등 불법 엽구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도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영기자



스노클링 즐기는 관광객들 지난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오리발과 물안경 등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해상서 남성 시신 발견

음주운전하다 신호등 '깡'... 20대 체포

제주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시민 건강과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는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하고 고질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채원기자

서귀포 해상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 중이다.

지난 12일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쯤 서귀포항 8부두 앞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시신을 낚시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로,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민기자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5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

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원기자

지난해 제주 환자 8명 발생

이리스를 보유한 극소수의 잠진드기에 물려 걸리게 되며, 5~14일 안에 고열 외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감염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전국 18개 지점에서 SFTS 주요 매개체인 잠진드기 발생 감시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SFTS는 주로 4~11월 SFTS 바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89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55명이 사망(치명률 18.7%)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8명이 감염돼 1명이 숨졌다. 앞선 2022년의 경우 환자 11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2021년에는 8명의 환자가 발생, 이중 2명이 숨졌다. 김채원기자

봄철 진드기 매개 'SFTS' 주의하세요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사라향

아래조성

포르토

화분묘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르토,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아래조성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르토,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성 / 유라조성 / 카라향 / 레온

가정원에 조성수 2~7년생(포르토,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 생산, 모수포 보유)
◆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르토, 화분묘 분양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3cm 5.5mm

쿨고리 인파고정판 인파밴드 쿨고리 작업세트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